

차별화된 복지문화로 불교계 노인복지 '앞장'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개관 10주년 맞아

서울 광진구 지역은 이전부터 거주해온 어르신과 지역개발 등으로 유입된 어르신 등 소득 수준이 상이한 세대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복지혜택에 대한 욕구가 다르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이곳에서 10년 동안 다양한 성향의 지역 어르신들이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왔다.

2003년 8월 1일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수탁하고 서울아차산 영화사에서 지원 운영하는 곳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차별화된 복지문화'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프리미엄 복지기관'을 비전으로 어르신을 위해 다양한 문화활동과 일자리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차별화된 복지문화를 꿈꾸려면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을 돕기 위해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된 '사랑의와플하우스'가 눈여겨볼 만하다. 2008년 서울시 지원 고령자기업육성지원사업으로 시작한 '사랑의와플하우스'는 2010년 2월 서울형예비사회적 기업에 선정, 2010년 12월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다. 불교계 복지관에서는 최하다.

신재원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부장은 "사랑의와플하우스'는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커피, 전

통차, 와플 제조법을 전수하고 어르신 스스로 카페를 운영해 소득을 창출하는 곳으로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의 자랑'이라며 "지역사회 주민은 물론 아동 및 학부모와 어르신들의 호응이 높아 1·2·3세대 통합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환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건강한 노년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사회 저소득 아동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이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관내에 실내 골프장을 설치해 어르신들이 저소득 아동들의 골프를 지도하는 '홀인원과 함께하는 사랑나누기'.

신재원 부장은 "수년간 진행된 골프교실을 통해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된 어르신들이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사회 1·3세대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6월 서울·경기지역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노인 성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2%가 성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사회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이성교제 문제가 더 이상 금기시 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이러한 사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9월 10일 무의탁 홀몸어르신과 함께하는 추석보내기 한마당을 개최했다(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전경(우).



불교계 최초 사회적기업 설립

매년 어르신 욕구조사 실시

9월 27일 개관 10주년 학술대회

회적 현상에 대해 보다 빠른 관심을 보여 왔다. 매년마다 어르신 욕구 조사를 실시해 2006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집단활동 프로그램 및 실버미팅을 진행해오고 있는 것. 사별 또는 이혼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실버미팅 '최고의 사랑'에 참여해 스관계형성프로그램 '스마일여왕 △포크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관은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노인복지관 최초로 2009년 3월 '광진노인전문상담센터'를 개설했다. 사회 복지사를 상담사로 두고 운영하는

다른 복지관과 달리 전문상담사를 두고 어르신들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마음챙김명상, 죽음준비 등을 주제로 노인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및 인근 지역을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내 노인상담센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결과 복지관은 '2009 서울시 노인복지관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2012 보건복지부 전국노인복지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의 결실을 맺었다.

또한 광장 화평 스님은 10년간 어르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복지정책을 펼쳐 2011년 '제10대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화평 스님은 "위탁 법인과 운영지원 사찰, 종사자들과 봉사자 및 이용자들이 모두 화합해 10년간 복지관을 이끌어왔다"며 앞으로 어르신들

의 여가와 안정된 노후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9·10월 두 달간 풍성한 행사를 진행한다. 복지관은 9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관 10주년 기념학술대회 '홀몸노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관의 역할정립'을 개최한다.

또한 10월 4일 오후 1시 복지관 대강당에서 이용 어르신이 직접 참여하는 '제11회 실버가요제'를, 11일에는 '개관 10주년 기념식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9988해피투게더'를 개최해 지역주민과 화합하는 한마당을 마련한다. 이밖에 10월 11일 광진광장에서는 '광진구 가수왕 선발대회'를, 10월 25일에는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착한소비축제'를 마련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기금을 계획한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주여성 위한 추석행사 마련

꿈을이루는사람들, 9월 8일 모자가족 초청해 쌀 등 전달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9월 8일 한국인 남편의 사망이나 남편의 폭력으로 혼자 아동을 키우는 이주여성 모자가족 30명을 초청해 한가위 행사를 열었다. 진오 스님과 이주여성 가족들이 송편빚기를 하고 있다.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9월 8일 한국인 남편의 사망이나 남편의 폭력으로 혼자 아동을 키우는 이주여성 모자가족 30명을 초청해 한가위 행사를 열었다.

꿈을이루는사람들은 "가족을 떠나 한국으로 시집은 이주여성고 2세 자녀들이 외롭고 쓸쓸한 한가위가 되지 않도록 송편빚기, 한복입어보기, 가족사진 촬영으로 비슷한 처지의 다문화 모자 가족들이 정서적 지지를 받도록 마련했다"고 전했다.

꿈을이루는사람들은 이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다문화 모자가족마다 쌀 10kg과 생필품을 선물했다. 진오 스님은 2012년 11월부터 3개월간 4대강 1천km를 뛰면서 모금한 2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이나는 기자

진오 스님은 "젊은 20대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지만 가진 게 없고 의지할 가족이 없어 많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달리기 때문에 보람있다"고 말했다.

언어장애를 가진 규석(5세)이를 키우는 캄보디아 출신 쌍팔라(25)씨는 "우리도 열심히 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 이야기 할 곳이 없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진오 스님은 1km마다 100원씩 적립되는 모금마라톤을 2년 동안 2천km를 달리 약 8천만원을 모금했다. 또한 지난 6월 미국 4,308km를 횡단한 김기철씨의 기부금 4천만원을 더해 다문화 모자가족을 위한 달팽이쉼터를 계약했다.

이나는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조손가정 장학사업

한국외환은행노조지부와 9월 9일 협약 체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사승)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가 조손가정 장학금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기철)는 9월 9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프로그램실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협약식을 가졌다.

김기철 위원장은 "어려운 가정 환경속에서 가사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전국의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부모와 손자로 구성된 가정)을 대상으로 총 6세대의 조손가정에 월2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을 통해 후원되는 조손가정 장학금은 서울(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도(양평종합사회복지관, 강원도(홍천군장애인복지관), 경상도(산청군건강가정지원센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기철)는 9월 9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협약식을 가졌다.

울진군노인요양원), 전라도(해남군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추천한 조손가정에 매월 지급될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이번 장학금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생활고를 겪는 조손가정에 지원됨으로써,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위드아시아, 미얀마·캄보디아에 구호지원센터 설립

'드림나래센터' '청소년도서관' 등 유소년 교육사업 박차

국제구호 비영리단체인 (사)위드아시아가 미얀마·캄보디아 청소년들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는 9월 2일 캄보디아 뿌레이벵주 뿌레이끄 랑마을에 '위드아시아 Dream나래센터'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개원식에는 캄보디아 뿌레이벵주 핫싸렛 도지사서와 쓰로웃캄봉군 잔드라 군수와 지역주민, 교사, 학생 등 500여 명과 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 스님(부산 문수사 주지, 전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과 이사 승지 스님(창원 성불사 주지), 이날제 사무총장, 전근수 캄보디아지부장 등

일행 10여 명이 참석했다.

지원 스님은 개원식 인사말에서 "오늘 준공된 드림나래센터는 그동안 자원해왔던 다양한 구호사업의 거점지로서 어린이공부방과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이동영화 상영, 보건소 등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행정적으로 잘 협조하고 지역주민들도 자녀들의 꿈을 이루는 배움터로서 소중하게 가꾸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스님은 현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이동영화 상영기기(컴퓨터, 빔프로젝트, 스크린, CD 등), 의약품, 학용품, 옷 등을 전달했다.

핫싸렛 도지사는 축사에서 "이곳 뿌레이벵주에는 그동안 다른 NGO들이 와서 건물을 많이 지어주었는데 오늘 완공된 드림나래센터는 가장 열악한 마을에 지어져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펼치는데 중요한 배움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드아시아는 9월 4일 미얀마 양곤 외곽에 있는 세인야다나 사원에서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주) 후원을 받아 '위드아시아 청소년도서관' 개관식을 열었다.

세인야다나 사원 주위에는 절대 빈곤층 마을이 위치해 제대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다. 밧단다 세인야다나 사원 주지 스님은 8년 전부터 사원 법당을 활용해 250



위드아시아는 9월 4일 미얀마 양곤 외곽에 있는 세인야다나 사원에서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주) 후원을 받아 '위드아시아 청소년도서관' 개관식을 열었다.

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부방3곳을 운영하고 있다.

(사)위드아시아는 북한과 아시아 지역 빈곤·소외계층과 국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국제구호 비영리법인으로 2002년 10월부터 11여 년 동안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인도적 지원사업을 전개해왔다.

국제구호사업으로 인도,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학교 및 공부방을 건립하고 각 나라 절대 빈곤 지역 마을에 우물설치와 지붕개보수, 기초의약품 지원, 결연사업 등 다양한 국제구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02)3444-8007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중단 불교 조계종

불교조계종의 종풍은 계율정성한 율종의 가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의 진리를 포교하여 세계인들의 마음에 안심을 구현하고 세계질서의 평화로운 세계와 불교정도의 세계를 세우는 일에 주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정법 구현의 사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본 종단에서는 승려전문 노인 병원, 종단사업(건설, 출판, 흥상, 기타사업 등)과 복지타운을 건립해 다양한 승려노후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총무원장 헤인 합장

입

중

및

사

찰

등

록

안

내

◆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 승적원부 (본종 소장양식 : 총무부 비치)
- 승적증빙서류 (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 사찰 전경, 내 외부 사진 각 1부
- 반 명함 사진 5매 (대가사를 수한 사진)

◆ 참고사항 ◆

-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 135-887 ●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 총무국 : (02)511-2026~7 팩스 : (02)511-2028 ●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 종단사업부 : 02)549-1918 ●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4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상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3년 9월 중

◆개강일시 : 2013년 9월 중 개강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편 ☎ 02)741-0495, 0496